

# 도내 대학 '글로벌30' 선정 협업체계 돌입

### 김관영 도지사·12개 대학총장들, 소통 통해 전략 모색 교육부, 대학들에 혁신안 주문하며 공모사업 추진 방침 전북도, 지정 위한 실행계획 수립시 전폭 지원키로

전북도는 도내 대학들이 정부 공모 사업인 '글로벌대학30'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전 간담회를 갖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달 28일 전북 대학을 비롯해 도내 12개 대학 총장들과 '글로벌대학 성공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부가 '글로벌대학30'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공모절차에 돌입함에 따라 비수도권 대학들이 글로벌 대학 공모에 족각을 굳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와 도내 대학이 함께 '대학의 생존'과 '지역발전'을 위해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글로벌대학30'은 교육부가 과감한 혁신을 내걸고 비수도권 대학 30곳에 5년 동안 대학 당 약 10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시책으로 '실질상 대학의 구조조정 신호탄'이라고 받아들일 정도로 최근

대학가에 떠오른 최대 쟁점이다.

교육부는 글로벌대학을 예비지정과 본지정으로 구분해 공모를 추진하면서 1단계 예비지정은 대학에서 제시한 혁신비전과 혁신과제를 핵심적으로 '글로벌대학위원회'에서 6월중에 15개 대학을 예비지정한다는 방침이다.

2단계 본지정은 예비지정된 15개 대학이 지자체 발전전략, 지역산업체 성장계획과 연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광역지자체가 교육부에 계획서를 제출하면 10월중에 10개 대학을 최종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도내 대학들은 글로벌대학 선정을 위해 자체 IT팀을 꾸리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 수립에 나서고 있을뿐만 아니라 지난 13일, 군산대와 우석대가 상호발전 위한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등 대학과 대학 간 연계 협력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전북도는 정부가 본지정을 위한 실행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달 28일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과 박진배 전주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도내 12개 대학 총장들과 '글로벌대학 성공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행계획 수립시 광역과 기초단체의 역할을 강조해오며 따라 도내 대학들이 예비지정 15개 대학에 포함되면 글로벌대학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총장들과 의견을 모았다.

김관영 도지사는 "글로벌 대학은 선정 여부를 떠나, 생존을 위한 혁신 전

락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동반 성장을 위한 과감한 혁신 전략을 기대한다"며 "대학도 열린 자세로 시대변화에 맞게, 이제는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경제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기관으로서 고민과 역할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글로벌 대학의 선택과 집중 지원에 대한 반발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 등 최근 변화에 대한 대학의 걱정을 알고 있다"며 "도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의 역할을 존중하고 경청하며 지역대학과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주대학교 박진배 총장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함께 도내 우수기업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과 일자리 매칭 등을 목적으로 도내 기업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정석케미칼을 방문한 박진배 총장 일행의 모습이다. (사진=전주대학교 제공)

## 지역과 협업·상생 발전 꾀한다

### 전주대 박진배 총장, 정석케미칼 등 도내 기업 연일 방문

전주대학교 박진배 총장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센터장 이상행)와 함께 도내 우수기업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 및 취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도내 기업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박진배 총장은 대학 관계자들과 (주)정석케미칼, (주)테크노를 방문하여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기업의 현황 및 채용 계획 등을 청취하고, 도내 기업들과 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 연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주)정석케미칼은 2차전지 핵심소재 시장 확대를 계획함에 따라 산학 연구를 활성화할 예정이며, (주)테크노는 탄소복합재 적용기술 개발 강화 및 미래 탄소중립 이행 및 지구환경 개선을 위한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계획을

논의했다.

박진배 총장은 도내 우수기업들과의 산학협력을 강조하고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과 지역·산업 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동반성장 실현을 이룰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주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 도내 기업들의 우수한 경쟁력을 홍보하고 우리 지역에 취업할 기회를 만들어 인재 유출 방지에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센터장 이상행)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주관하는 사업 운영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에 선정되었으며, 청년고용 서비스 체계와 전문인력을 활용해 기업-청년 간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 전주대, World-OKTA와 탄소산업 글로벌화 추진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이하 전주대)는 세계 최대 규모 복합소재 박람회 'JEC World 2023'에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World-OKTA와 '한국판'을 공동 운영하며 약 30만 불에 달하는 수출 계약 두 건을 성사하게 됐다.

'JEC World 2023'은 지난달 25일~27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글로벌 행사로 한국판에서는 AI를 활용해 최첨단 탄소산업용 시제품의 이력 적용해 가능성을 높인 탄소산업용 선보였다.

전주대와 월드옥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산학연 컨소시엄 결성을 통해 탄소 복합재 관련 국내기업들의 공동

연구 성과 제품들을 전시하며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기회를 마련하여 흥순용 회장(월드옥타 시카고 지회장)과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K-탄소 복합재는 활성탄소섬유 소재와 철근을 대체할 수 있는 탄소 복합재, 친환경 소형 선박 제조 소재, 전자파 차폐선 차세대 항공 모빌리티 시장 등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 현장에서 세계한인무역협회와 전주대의 협업 체계 위에서 국내 탄소 복합재 기술력과 제품들을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시장 개척 및 선점을 위한 탄소 협력 네트워크(탄탄대로)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약속했다. /김재훈 기자

## 전북대, 필리핀서 글로벌 대학 위상 강화

### 양오봉 총장 등 방문단, 필리핀 방문 '성과' 아얌라몰에 한옥 K-Garden 준공... K-Town 조성 확대 현지 최고 사립대 라살대학교 교환학생 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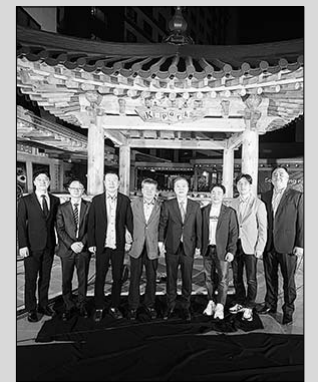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필리핀 마닐라시에 한옥을 수출하는 등 글로벌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다져가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이하 현지시간) 28일까지 필리핀을 순방한 양오봉 총장 등 방문단이 필리핀 마닐라 시의외 대학 한인회 등과 교류를 강화하고, 특히 마닐라 중심부에 K-전통문화를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등 성과를 올렸다.

특히 지난해 베트남과 알제리에 이어 필리핀에 한옥타운을 조성기로 했던 전북대가 마닐라 중심부 최대 쇼핑몰인 '아얌라(Ayala)'몰에 전통 한옥정자 등을 준공하고, 현지 마닐라라코리아타운협회와 협력을 약속하는 등 한류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또한 조성했다.

양오봉 총장 등 방문단은 27일 마닐라 아얌라몰에서 현지 교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K-Garden 준공식을 가졌다. K-Garden은 마닐라 중심부인 아얌라몰에 한옥 정자와 담장, 처마, 대문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필리핀 한국계 기업인 CONGRATS 2U(사장 박광철)와 협약 체결 후 전통 한옥정자와 한국 정원을, 그리고 주변을 한국적인 요소로 꾸민 것이다.

특히 이날 양 총장은 마닐라 시의회 초청을 받아 직접 시의회에서 양국 간 교류를 위한 즉석 시의회 영여 연설의 시간도 가졌다. 마닐라 시의회 연설은 매우 흔치 않은 일이다.



양 총장은 유창한 영어로 전북대의 첨단산업 분야 우수 인프라에 대해 직접 설명하며 전북대로 우수 학생들을 보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라북도와 마닐라시 간 가교 역할을 맡기로 해 시의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에 앞서 28일에는 필리핀 마닐라라코리아타운협회와 협약을 맺고, 한국 건립을 마닐라 코리타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양오봉 총장을 비롯해 김종팔 마닐라라코리아타운협회장, 김기동 국제협력위원장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협약을 통해 전북대는 마닐라 코리타운에 공동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고, 주변을 한옥형으로 조성하는 등 이곳을 케이타운(K-Town)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전북대 한국음악 공연단은 교민들

과 현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판소리 등 공연을 펼쳤다. 한국문화를 현지에서 접하고 크게 감동한 마닐라라코리아타운협회는 앞으로 매년 4월 28일을 '전북대의 날'로 지정해 우리 전통문화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정기적 공연과 교류를 이어나가 자고 제안했고, 양 총장도 이에 화답하는 등 시종일관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필리핀 최고의 사립대학인 라살대학교와의 교류도 본격화됐다. 이날 양 총장 등 방문단은 라살대학교 버나드 오카(Bernard S. Oca FSC) 총장과 크리스토퍼 폴란코(Christopher N. Polanco) 부총장 등을 만나 라살대학교 시스템 안에 있는 대학 중 하나인 라살아티네티타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교환학생 제도 시행을 중심으로 한 다방면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김종팔 마닐라라코리아타운협회장은 "그동안 우리의 숙원인 코리타운 내 커뮤니티시설을 한옥으로 건축하고 주변을 한옥화하는 소원을 전북대를 만나 풀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문화를 필리핀에 알릴 수 있는 더 많은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오봉 총장은 "3일 간의 짧은 방문 기간 동안 필리핀 중심부에 한옥 건립을 통해 한국을 알리고, 교민사회와의 협력과 필리핀 최고 대학과의 교류 등의 다양한 성과를 올리게 돼 매우 기쁘다"며 "세계로 나아가는 전북대 한옥의 세계화를 통한 한국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학생교류를 약속한 라살대학교의 교류도 보다 구체화해 글로벌대학으로서의 위상 강화와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이해 돕는다

### 도교육청, 5월~9월 90개 중학교서 찾아가는 설명회 추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중3 학생들에게 직업계고에 대한 정보와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중학교로 찾아가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설명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5월 2일 고창 상하중을 시작으로, 9월 15일까지 도내 90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직업계고 교사들로 구성된 홍보지원단이 중학교로 직접 찾아가 특성화

고·마이스터고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계열별·전공별 특징 및 졸업 후 진로 등을 안내한다.

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입학 특전과 우수사수를 소개해 직업계고에 대한 중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신입생 충원율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기준으로 도내 직업계고는 마이스터고 4교, 특성화고 24교, 일반고 단이 중학교로 직접 찾아가 특성화

고·마이스터고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계열별·전공별 특징 및 졸업 후 진로 등을 안내한다.

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입학 특전과 우수사수를 소개해 직업계고에 대한 중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신입생 충원율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기준으로 도내 직업계고는 마이스터고 4교, 특성화고 24교, 일반고 단이 중학교로 직접 찾아가 특성화

고·마이스터고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계열별·전공별 특징 및 졸업 후 진로 등을 안내한다. 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입학 특전과 우수사수를 소개해 직업계고에 대한 중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신입생 충원율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기준으로 도내 직업계고는 마이스터고 4교, 특성화고 24교, 일반고 단이 중학교로 직접 찾아가 특성화

## 에너지신산업 분야 선도

### 국립군산대, 첨단분야 에너지신산업학부 신설

글로벌대학30을 위한 강도 높은 1, 2차 학사구조 개편을 추진한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이상호가 에너지신산업 분야를 선도할 첨단분야 에너지신산업학부를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신설한다.

그동안 국립군산대는 글로벌대학30 선정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학사구조 개편을 통한 고강도 대학대전환과 비전선포식을 개최했으며, 이번에 첨단분야 에너지신산업학부 승인이라는 큰 동력을 얻게 됐다.

국립군산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핵심 주제인 에너지 신산업 분야 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위해 첨단분야 학과 신설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동안 군산대는 2차례에 걸친 강도 높은 학사구조 개편에 성공해서 기존의 7개 단과대학을 2개 대학으로 통합했고, ICC(산업융합특화센터) 기반 대학부제를 15개 신설 및 구축해 교육시스템의 효율성과 혁신성을 갖추었다.

에너지신산업학부는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입주하는 다양한 이차전지 기업들과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핵심 인재 수요에 맞추어 이차전지를 비롯하여 소형모듈원전(SMR)과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 분야를 전공과 트랙 등의 형태로 기업과 연계해 교육과정에 담아 운영하게 된다.

또한 해외 우수 연구자를 교수로 채용하고 글로벌 대학 연계 교육 시스템 구축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취업까지 연계해 계획이다.

이상호 총장은 "국립군산대는 시대 흐름에 맞는 혁신성을 갖추고 기업과 사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국립고등교육의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첨단학부 신설을 기반으로 군산·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성장에 필요한 핵심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이재훈 기자

## 전주교육문화회관, 중학생 문화예술공연 마련·운영

### 국악·비보이 공연 마쳐 10월 마당장극 진행키로

전주교육문화회관(관장 이현규)은 상반기 중학생을 위한 문화예술공연을 지난달 26~27일 운영했다.

청소년의 예술 감상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 공연은 상반기에는 '해설이 있는 국악과 비보이 공연'을, 하반기에는 '전라감찰사들 소 재로 한 K-뮤지컬 마당장극'으로 구성됐다.

지난 26~27일 2일간 진행된 공연에는 용진중, 기전중, 근지중, 화성중 4개 학교 총 664명이 참석했다.

전라북도립국악원 협찬으로 몽골의 넓은 초원을 표현한 국악관현악의 깨어난 초원, 발발굽소리'로 시작해 해금협주곡 '추상', 세계명곡기행, 수궁가와 흥보가의 눈대목을 편곡한 '별내려온다'와 '시리랑길', 마지막으로 모듬북 협주곡인 '타'가 공연됐다.

전주시 홍보대사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비보이 댄스팀인 라스트포원은 브레이크의 역사와 요소를 설명하고, 비보이의 동작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워크숍 형태의 공연을 펼쳐 학생들의 환호성이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한편 하반기에는 전주문화재단 브랜드공연에서 K-뮤지컬 장극 '오만방자 전라감사 길들이기'를 10월 11~13일까지 3일간 공연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